

초·중·고생 3만명 대상 희망직업... 쏠림 줄고 다양화

유튜버·뷰티·운동선수 '급부상'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등학생, 운동선수 1위 등극
10년 1위 교사 제쳐... 선호도 ↓
고등생 10위권 내 의사 없어
이공계열 희망직업 구체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 순위가 바뀌고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희망직업 10위 안에 유튜버(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첫 진입했고, 희망직업 상위권에 있던 교사, 의사 등의 선호도는 지속 하락 추세를 보였고, 세분화된 직업들이 추가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200개 초·중·고 학생 2만7265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6~7월 5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다양해졌고 구체화됐다. 유튜버,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등의 직업이 10위권에 새로 등장했고, 매년 초·중·고 선호직업 1위인 교사 선호도는 하락 추세다. 올해 초등학생 선호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교사는 2위가 됐다.

새로 등장한 직업은 초등학생의 경우 유튜버, 중학생은 뷰티디자이너, 연주·작곡가, 고등학생은 헤어디자이너·메이크업 아티스트·네일아티스트·타투이스트·뷰티매니저,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초·중·고생 희망 직업 순위
2018.6.12~7.20, 전국 초·중·고 1,200교 학생 27,265명 대상 조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위	운동선수	교사	교사
2위	교사	경찰관	간호사
3위	의사	의사	경찰관
4위	조리사(요리사)	운동선수	뷰티디자이너 NEW
5위	인터넷방송 진행자(유튜버) NEW	조리사	군인

NEW : 희망직업 10위권에 새로 올라온 직업
*뷰티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타투이스트, 뷰티매니저

자료/교육부



으로 희망직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의사와 간호사로 양분됐던 의료 관련 직업이 의사, 간호사, 의료·보건 관련직으로, 과학자와 엔지니어로만 구분되던 이공계열 직업이 화학·생명·과학·컴퓨터 공학 등으로 세분화되는 등 희망직업이 구체화된 것도 눈에 띈다.

교사를 희망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2007년 11.06%에서 2012년 10.7%, 올해 9.9%로 지속 감소 추세로 올해 운동선수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중·고교에선 여전히 교사가 1위지만 그 비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11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올해 교사 희망 비율은 중학생은 19.8%에서 11.9%로, 고등학생은 13.4%에서 9.3%로 낮아졌다.

희망직업 상위권 의사 선호도 역시 하

락 추세다. 2007년과 비교해 의사 선호도는 초등학교의 경우 10.5%에서 5.1%로, 중학교에서는 9.4%에서 4.8%로 떨어졌다. 올해 고등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에서는 의사가 아예 없었다.

초등학생들은 운동선수와 교사에 이어 의사, 조리사(요리사), 인터넷방송진행자, 경찰, 법률전문가, 가수, 프로그래머, 제과·제빵사 순으로 희망했다. 중학생들은 교사에 이어 경찰, 의사, 운동선수, 조리사(요리사), 뷰티 디자이너, 군인, 공무원, 연주·작곡가,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가 되고 싶어했고, 고등학생은 교사, 간호사, 경찰관, 뷰티 디자이너, 군인, 건축가·건축디자이너,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순으로 되길 희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쟁률 양극화 뚜렷... 서울 ↑ 전국 ↓

자사고·일반고 첫 동시선발

서울 명덕외고 1.87대 1 가장 높아
전국단위 하나고 경쟁률 큰 폭 하락

2019학년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신입학 경쟁률이 서울지역은 상승·유지한 반면, 전국 단위 자사고 경쟁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첫 일반고와 동시선발하면서 자사고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지만, 중복지원이 허용돼 탈락시 인근 지역 일반고 입학이 가능해 지원자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왔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전국 학생들이 지원하다보니 중복지원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고 경쟁률 2.35대 1, 전년 3.67대 1에서 큰 폭 하락

올해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 경쟁률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 종료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12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2019학년도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 김천고, 북일고, 포항제철고 등 4개교 정원내 평균 경쟁률은 1.48대 1로 전년도 2.22대 1보다 하락했다.

하나고는 200명(정원내) 모집에 47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35대 1을 기록, 전년도(3.67대 1)에서 크게 하락했다. 전형별로 일반전형(남여 각 80명, 총 160명 모집, 411명 지원)은 2.56대 1, 사회통합전형(남여 각 20명, 총 40명 모집, 59명 지원) 1.47대 1로 나타났다. 정원외(보훈자 자녀 6명 이내, 고입특례대상자 4명 이내)에는 11명이 지원했다.

김천고는 240명(정원내) 모집에 275명이 지원, 1.15대 1을 기록해 전년과 같았다. 전형별로 일반전형(전국) 1.74대 1(전

년 1.42대 1), 일반전형(광역시) 0.84대 1(전년 1.23대 1), 사회통합전형 0.75대 1(전년 0.48대 1)이었고, 10명 정원의 체육특기자전형은 지원자가 없었다.

북일고는 360명 모집에 357명이 지원, 0.99대 1(전년 1.95대 1)로 전년 경쟁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형별로 일반전형(전국) 1.28대 1(전년 3.47대 1), 일반전형(광역시) 1.03대 1(전년 1.20대 1), 사회통합전형 0.38대 1(전년 0.76대 1), 체육특기자(야구) 1대 1(전년 1대 1)이었다.

포항제철고는 일반전형A(전국) 1.97대 1(전년 3.67대 1), 일반전형A(포항) 2.27대 1(전년 2.04대 1)로 나타났고, 180명 정원인 일반전형B(포스코임직원자녀) 지원자 미달로 전원 2차 면접 대상자가 된다.

◆서울 자사고외고 경쟁률 상승·유지
서울지역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경쟁률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12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대일·명덕·서울·이화·한영 등 6개 외고 '정원내 모집'(일반·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1.51대 1로 작년 1.34대 1보다 상승했다. 명덕외고가 1.87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250명을 뽑는 서울외고에는 206명만 지원해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 21개 자사고 일반전형 경쟁률은 1.30대 1(6231명 선발, 8037명 지원)로 작년(1.29대 1)과 비슷했다.

다만 경문·대광·송문·현대·세화외고 등 5개교는 미달을 기록했다. 지원자 미달 학교는 지난해 7곳에서 2곳 줄었다.

오종문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와 중복지원이 허용되면서 자사고 지원자가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도 "다만 지방의 경우는 중복지원 허용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용수 기자

연세대 수능 100%, 동국대 90%+10%

(수능) (학생부)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㉔ 서울 주요대 '영역별 반영비율'

입시 요강에서 변화가 생기면 입시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연세대(나군)는 전년 수능 90% + 학생부 10%에서 올해 수능 100%로 바뀌었다. 반면 동국대(가, 나군)는 종전 수능 100%에서 수능 90% + 학생부 10%로 바뀌었다.

서강대는 가군 전체 모집단위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을 전면 허용한다. 서울시립대는 올해 인문계열을 인문 1과 인문 2로 구분해 영역별 반영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인문 1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탐구 15, 인문 2는 국어 30, 수학 35, 영어 25, 탐구 10으로 반영한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어렵게 출제됐으나, 특히 국어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 가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3점으로 국어와 수학 가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17점에 이른다. 이처럼 영역별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서는 영역별 반영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에서 서강대와 한양대를 비교하면 서강대는 국어 34.5%, 수학 46.9%, 탐구 18.8%로 수학과 국어의 비중이 높다. 반면 한양대는 국어 20%, 수학 35%, 탐구 35%로 수학과 탐구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수학과 국어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서강대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학과 탐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한양대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과별로 반영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의 경우 수학의 반영비율이 수학과 50%, 화공생명공학부 35%, 의류학과 25%로 학과별

로 큰 차이가 있다.

올해 수능에서는 영어의 난이도가 높아져 1등급 비율이 5.5%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2등급 이내 비율도 19.6%로 전년 대비 10.1%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영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은 받은 학생의 경우 영어의 감점폭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

서울대와 중앙대는 1-2등급의 점수차가 0.5점에 불과하지만, 이화여대의 경우 10점이 감점된다. 중위권의 경우 2-3등급 또는 3-4등급의 점수차가 중요한데, 등급간 감점폭이 달라지는 대학도 많다. 예를 들어 세종대의 경우 1-2등급의 점수차는 10점, 2-3등급의 점수차는 20점, 3-4등급의 점수차는 30점으로 점수차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점수를 반영하지만, 중위권의 경우 표준점수와 백분위 반영 대학이 섞여 있기 때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탐구과목에서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한용수 기자

2년차 미만 직장인 61% "나는 취반생"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도, 기업 새내기 직장인 중 상당수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취반생(취업반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사람이 직장인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미

만의 신입사원(141명) 10명 중 6명꼴인 61%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취업 반수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더 나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72.1%)였다. 이어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33.7%), '기대했던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달라서'(29.1%), '연봉이 너무 적어서'(27.9%), '급하게 취업을 해서'(19.8%), '직무가 맞지 않아서'(18.6%)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근무환경과 업무가 적성에 맞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태를 반영한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서울대 공대 발전공로상에 박종근 명예교수·에릭 존 사장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박종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명예교수와 에릭 존 보잉코리아사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전공로상은 서울대 공대가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총 29회에 걸쳐 51명이 받았다.



박종근 서울대 명예교수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

동국대 올해도 익명의 불자 장학금 2억 기부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5일 익명의 불자가 동국대 대외협력처를 방문해 장학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독실한 불자인 익명 기부자는 지난 2009년 3억 원, 2017년 2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데 이어 올해도 2억 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본인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해 달라

고 전한 이 기부자는 "부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중"이라며 "기부는 절대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닌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얻은 것이기에 수입의 90%를 보시하고 있다. 조계종립 학교인 동국대가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기를 바란다"고 기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세종대-세종연구원 'MS 혁신사례 공유'... 세종포럼 성료

세종대(총장 배덕호)는 세종연구원(이사장 이요섭)과 공동으로 지난 6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를 초청해 '마이크로소프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사장은 강연에서 "포춘 500대 기업이 1955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87%가

바뀌었고, 2000년 이후 포춘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며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던 기업이 지금은 잊혀졌듯이 우리 앞에 놓인 변화란 단지 기업 순위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가져오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